|  |
| --- |
| **보도자료 – 차바이오그룹**  **홍보본부 |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 | www.news.chabio.com** |

배포일 : 2025.09.11

|  |
| --- |
| **차바이오그룹, CGT 혁신 기술 공유 및 사업화 전략 모색**  **19일 ‘제3회 Cell & Gene Tech Investment Forum' 개최**   * **CGT 최신 기술·글로벌 투자 및 오픈이노베이션 집중 조명** * **아시아 최대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‘CGB-CIC’ 공식 공개** * **국내외 바이오기업, 글로벌 제약사·벤처캐피탈 등 400여 명 참석 예정** |

차바이오그룹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‘제3회 Cell & Gene Tech Investment Forum(이하 CGTI 포럼)’을 개최한다.

CGTI 포럼은 세포·유전자치료제(Cell & Gene Therapy, CGT)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, 글로벌 투자 트렌드, 사업화 전략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바이오산업 대표 기술·투자 포럼이다.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동향·투자·오픈이노베이션 세션, 기업 사업설명(IR), 1:1 맞춤 파트너링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.

기술 동향 세션에서는 ▲류성호 한국생명정보학회장이 ‘엑소좀 기반의 유전자 진단기술’ ▲박민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리지 최고운영책임자가 ‘바이럴 벡터 제조 기술’ ▲존스홉킨스병원 윌리엄 구지노(William B. Guggino), 리우드밀라 체보타루(Liudmila Cebotaru) 교수가 ‘CGT 최신 기술 동향’ ▲일본 준텐도대학 치히로 아자카와(Chihiro Akazawa) 교수가 ‘일본 재생의료 정책 동향’을 각각 소개한다.

투자 세션에서는 한인수 라플라스파트너스 대표, 올리비아 겅(Olivia Geng) 알테아 인베스트먼트 이사, 박기수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상무가 글로벌 CGT 투자 및 M&A를 전망한다.

오픈이노베이션 세션에서는 양은영 차바이오그룹 부사장과 데니스 메들렌카(Denyse Medlenka) CIC 사장이 ‘CGB-CIC’의 비전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. 이 밖에도 조아련 존슨앤드존슨 제이랩스 코리아 벤처부문 이사, 지로 마츠무라(Jiro Matsumura) 노바티스 글로벌 사업개발팀 이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.

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올해 말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개소 예정인 ‘CGB-CIC(Cell Gene Bio-platform–Cambridge Innovation Center)’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소개다.

CGB-CIC는 차바이오그룹과 케임브리지혁신센터(CIC)가 공동 조성한 아시아 최대 규모(약 1만㎡)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다. 바이오 벤처 및 스타트업이 창업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네트워킹 프로그램,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링, 해외 CIC 글로벌 캠퍼스 연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.

기업 IR 분야에서는 포르자 바이오, 서지엄 바이오사이언스, 에스엔이바이오, 사이알바이오, 인게니움테라퓨틱스, 유씨아이테라퓨틱스, 펨토바이오메드 등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연구성과와 사업화 전략,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, 미래 로드맵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업과 네트워크를 촉진한다.

차바이오그룹 양은영 부사장은 “세포·유전자치료제 분야는 기술·제조·규제·자본이 융합하는 미래 신산업”이라며, “CGTI 포럼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. 특히 CGB-CIC는 세계적 연구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로 바이오 분야 새로운 혁신의 중심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(끝)

※ 첨부. Cell & Gene Tech Investment Forum 프로그램

